

지자체 대형 프로젝트 부실 막을 장치 마련을

전남도, F1에 8752억원 투입 ... 남은 1150억원 상환 부담

F1 (Formula One) 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관련된 부채가 민선 9기에 해당하는 2029년까지 전남도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부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회나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F1 백서 발간을 통해 대회 유치 과정과 개최 그리고 개최 후 뒷처리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F1 대회 미개최에 따른 위약금과 관련 F1대회 주관사인 FOM(Formula One Management)과 지난 2016년 위약금에 대한 양측의 서신이 오간 뒤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위약금 분쟁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개최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한 사례가 지금까지 없는데, 분쟁 과정에서 FOM의 소유주가 바뀌고 민선 7기가 출범하는 등 여건도 급변했기 때문이다. F1대회는 2010-2013년 대회를 개최한 뒤 2014년엔 조직위와 FOM의 합의에 따라 대회를 열지 않았으며, 남은 계약 기간 2년(2015-2016년)은 개최를 포기했다. 2016년 당시 FOM은 1년치 개최권료(4300만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F1대회조직위원회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다만 전남도는 민선 4기 F1 대회를 개최하면서 발행한 지방채를 민선 9기에 해당하는 오는 2029년까지 갚아나가야 하는 처지다. 전남도는 F1 대회 개최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6년간 8752억원의 재정을 투입했으며, 이 가운데 1980억원(금리 3.0%), 868억원(4.85%) 등 2848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부담했다. 이 가운데 올해까지 1698억원을 갚았으며, 2020년부터 2029년까지 나머지 1150억원을 매년 44억~158억원으로 나눠 상환할 방침이다. 민선 4기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대가를 민선 9기까지 치러야 한다는 의미다. 열악한 재정의 전남도로서는 F1 빛을 감기 위해 미래를 위한 신규투자를 그만큼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남도의 지방채 발행액은 6354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도 정비(2638억원)에 이어 F1 부채(1150억원)의 규모가 두 번째로 크다. 다만 전남도는 F1 경주장을 운영해 매년 1억원 내외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 없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지방채를 대거 발행하는 관행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대학교수는 "임기가 정해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천문학적인 빚을 내 행사를 치르고 이후 뒷감당은 다음 단체장이 이어받게 되면 그로 인해 필요한 사업이나 협안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며 "앞으로 그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보다 꼼꼼한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내일 광복절 ... 광주 수완지구에 걸린 'NO! 아베, OK! 광복'

▲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광주시 광산구 원당산~수완동 인라인스케이팅 인근 1km 구간에 'NO! 아베, OK! 광복, Remember 1945.8.15'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 현수막은 더불어민주당 광산을 지역위원회에서 당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제작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의회,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 추진

오늘 일본대사관서 규탄 회견
부산·울산 등도 조례안 발의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도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 수의계약과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간담회를 열어 '광주시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및 공공 구매 제한 조례안' 발의와 관련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조례안 발의에 찬성하고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조

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3명 시의원 모두가 조례안에 이름을 올렸다.

조례에 해당하는 전범 기업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전범 기업으로 확인된 일본 기업이다. 조례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광주시,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시의회 사무처, 공사·공단 등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광주시와 시 산하기관은 전범 기업과 수의계약이나 공공 구매를 할 수 없고 보유·사용 중인 제품에 전범 기업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시는 전범 기업의 제품을 실패 조사하고 결과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시는 자치구에도 수의계약 제한과 제품 표시를 권장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제정 방침을 밝히고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규탄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일본 수출 규제가 확대되면 대일 의존 비율이 높은 기업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시와 협력해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 울산, 경북시의회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도 일본 전범 기업 관련 수의계약, 투자 등을 금지하는 조례안과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다시 '찜통더위' ... 광주·전남 폭염경보·열대야



13일 구례 산동면 수락폭포를 찾은 피서객들이 쏟아져내리는 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태풍 '크로사' 영향
15·16일 비 내리며 꺾일 듯

제9호 태풍 '레키마' (LEKIMA)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광주·전남 전역에 다시 찜통더위가 찾아왔다.

이번 폭염은 광복절 하루전인 14일까지 이어지다 일본으로 북상중인 제10호 태풍 '크로사' (KROSA)의 영향으로 15일과 16일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3일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전남 내려진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여수시 거문도·초도 제외)에 내려진 폭염특보를 유지하고 일부 지역은 폭염경보를 발효했다"고 밝혔다. 이날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광주와 전남 12개 시·군(나주·담양·곡성·구례·장성·화순·광양·순천·장흥·영암·함평·영광)이다.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는 각각 하루 최고기온이 33도·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14일까지 낮 최고기온이 34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밤에는 곳곳에서

최저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 가지 않은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다.

14일에는 광주·전남 내륙지역에 대기를 안정으로 인해 5-5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으나, 온도를 낮추기는커녕 습기까지 더해지면서 불쾌지수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에는 북상하는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락가락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The 18th FINA
**WORLD MASTERS
CHAMPIONSHIPS**

DIVE INTO PEACE

평화의 물결 속으로

제18회 2019 광주FINA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
2019. 8. 5. - 8. 18. (14일간)
www.gwangju2019.com/masters

Official FINA Partners
arena Myrtha Pools SAMSUNG

National Sponsors
kt 광주은행 흥국증권 ASIANA AIRLINES 서울특별시 KIA 롯데제과 한국전력공사

Official FINA Suppliers
DURALEX Malouin MIKASA PLANEW 신세계호텔 ANSIB DB생명보험 ADPHEM PRO-PCS

National Supporters
(주)세명여행 NHN 티켓링크 제일 예프앤에스 동영산업